

예인교수양상블의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콘서트'

11월 24일 금 오후 07:30 장천아트홀서 정기연주회



2003년 3월 7일에 창단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인교수양상블은 유럽과 미국등지에서 수학한 뒤 현재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견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인교수양상블은 아름답고 절제된 앙상블과 하모니로 언제나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줌으로서 많은 대중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견 자선연주단체이다.

예인교수양상블은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수많은 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외환은행 나눔 재단”과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사랑의 열매”, 서울삼성병원과 고려대학교병원 등과 협력하여 난치병 소아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사회 소외계층, 장애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그 후로도 유니세프 후원기금 지원, 파키스탄 하이드라바드시 성엘리자베스 병원 지원, 캄보디아 개안수술비 지원, 아프리카 콩고 성요한학교 건축비 지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여명학교” 건축비 지원 등 쉬지 않는 발걸음으로 노력해왔다.

2007년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해비타트- 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2013년엔 대한적십자사 서울 지사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글. 예인교수양상블 단장 박윤희
(사무부총장, 서울신라RC)



1. 중증장애아시절 소망의 집 지원



2. 고려대학교병원 소아암어린이 치료비 지원
3. 서울삼성병원 소아암어린이 치료비 지원
4. 캄보디아 개안 수술비 지원



예인교수양상블은 매년 지원할 대상을 추천받아 정기공연의 공연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난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이후 매년 천명이상 꾸준히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그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단원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수익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예인교수양상블의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콘서트”는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장천아트홀에서 열리게 된다.

이 지면을 빌어 오랜 시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예인고문이신 한국이엔엑스 김충한 회장님, 후원회장님인 전인 CM 장희정 대표님, 현대시계 조성찬, 오순호 대표님, 기독교 치과 김동필 원장님, 돈존 김형언 대표님, 파파존스 서창우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인교수양상블의 “아름다운 콘서트”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기원해본다.